

추모 예배 순서

집례_담당 교역자 또는 가장

예배시작 집례자

오늘은 고 ○○○님께서 소천하신 날입니다. 고인은 천국에 가셨지만 아직 도 우리의 가슴 속에 고인의 모습이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묵도 드리심으로 추모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다 같이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찬 송 찬송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다 같이

- 1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도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 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양 생명책에 기록 하옵소서
- 2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 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양 생명책에 기록 하옵소서
- 3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같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양 생명책에 기록 하옵소서

말씀봉독 요한복음 14:1-4 다 같이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 씀 예비된 영원한 집 집례자

우리는 이 시간 사랑하는 고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없고,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에 큰 구멍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의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걸어왔던 주님께서 자신들을 두고 떠난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렇게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 슬픔을 넘어 믿는 모든 자를 위해 예비해두신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비된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근심을 이기는 길을 오직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져 물결이 요동치고 흙탕물이 일어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고인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슬픔과 격정이 요동치는 것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겪는 이별의 슬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시오. 근심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이 이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되시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믿고, 지금도 고인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인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슬픔을 내려놓고,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 믿는 자들에게는 예비 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장막에 비유합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남아집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머물 천국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고인은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영원한 집’에 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인은 지금 예비된 영원한 집에서 가장 건강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슬퍼하지만, 고인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3) 믿는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가장 큰 이유는 황금 길이나 보석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고인을 주님께서 친히 마중 나오셔서 그 따뜻한 손으로 고인을 붙드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고인의 환한 미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인이 가신 길을 압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인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아버지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에,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인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고인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따라 살아감으로 다시 만날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슬픔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은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집에 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고인이 평소 보여주셨던 사랑과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다가 훗날 기쁨으로 천국에서 재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 도 집례자
 주기도문 다같이